

## 世代대결 政治圈 대수술 급하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대 지각변동으로 우리 정치권이 또 한번 요동쳤다.

정치활동을 해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시민운동가인 박원순씨가 무당파로 출마해서 단숨에 서울시장 자리를 접수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다. '박빙의 승부'가 되리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뒤엎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박원순 시장은 10·26 보궐선거에서 집권 한나라당의 거당적 지원과 특히 차기 대권후보 1순위인 박근혜 전 대표의 적극적인 응원사격에도 불구하고 나 후보를 여유있게(53.33% 대 46.30%) 따돌리고 당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선거판도 세분화-다극화

이번 선거는 단지 오세훈 전 시장의 도종하차로 꺾이던 서울시장을 뽑는 행사로만 보아선 안 된다. 정작 메인 게임인 내년 대선과 총선의 향방을 미리 떠보는 사실상의 전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생각하면 이번 선거는 박원순의 승리라기 보다는 박근혜를 무력화시킨 안철수의 승리라는 확대해석도 가능해진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또한 '영 앤드 울드' 제네레이션 간의 비정한 세(勢)대결이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50~60~70대 노년층은 대체로 나경원에 표를 던진 반면, 20~30~40대의 젊은 층은 박원순을 선택했음이 극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투표마감시간이 가까워지자 20~40대의 직장인들이 투표소에 대거 몰려와 줄을 섰다는 글들이 트위터를 장식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이러한 현상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결국 우리의 국론이 지난 날의 지역별, 이념별, 정파별 분열현상에서 다시 세대간 분열로 세분화되고 다극화 되었음을 말해주는 부정적 사례다.

서울시장선거에서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이러한 대 반란현상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염증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 물가의 고공행진과 고액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등에 실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야 한다. 어찌 보면 나경원 후보는 그 유탄을 맞고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점에서 일말의 동정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사저문제로 빚어진 물의가 나경원에 대한 감표요인의 악재로 작용한 것도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20~40대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 특별기고



지용우

- 본회 6·25참전 동우회 간사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는 살아남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 수술은 결코양만 바꾸는 성형수술이어서는 안 되며 썩은 장기를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는 환골탈태의 대수술이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혁명적인 차원의 체질개선에 완전히 달라진 새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다시 '박근혜 책임론'으로 되돌

매우 안타까운 시점이다. 적시안타의 기회를 놓친 그 때의 천려일실이 결국엔 지금 '박근혜 대세론'에까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 '한국의 대처'라고 일컬어졌던 박근혜는 자신이 만든 비좁은 관념의 창에 갇혀서 시대의 변화를 읽는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면 안철수는 몇 종의 방어망에다 배수의 진까지 쳐놓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실험물(박원순)에 대한 약발이 거의 떨어져가고 있다고 느낀 순간 그는 박원순을 찾아가서 재충전하는 빈틈 없음을 과시했다. 안철수 원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박원순을 찾아가 응원의 편지라며 건네준 쪽지는 1955년 흑인인권운동의 주요 계기가 된 로자 파크스 사건을 환기시킨 의미있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날이 바로 파크스의 기일(忌日)이었다는 점도 안철수의 과학도적인 치

밀함과 문학소년적인 정서를 엿보게 한 대목이었다. 박원순의 승리는 곧 안철수의 대권도전과 직결되는 등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안철수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

박원순 변호사가 이미 시장이 된 마당에 우리는 그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따질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의 지난날의 행적에 비추어 볼때 그의 좌편향적 사상에 전혀 수정을 가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중추신경인 서울시장의 업무를 수행해도 관철은가 하는 점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점이다.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되었다"는 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가? 첨예한 남북대치상황과 끊임없는 북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실정을 보면서도 "국제사회에 뽐뿌이 나서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또한 변함이 없는가?

박원순의 어록 중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당신의 신념인가? 박원순은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불안을 느끼는 수많은 이땅의 보수우익 국민들의 이유있는 항변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을 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 서울시장선거 20~40代 변화욕구 분출 政府·與黨 환골탈태의 새모습 보여야

기세였다는 점을 과소평가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절대 승산이 없다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집권 정부와 여당에 던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젊은 시대 청산' 욕구 붓물

안철수 돌풍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분노로 변하면서 새 인물에 대한 목마름과 '젊은 시대'를 청산하자'는 구호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은 하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앞으로 최 단시일내에 혁명적이고도 대대적인 자가수술을 단행하지 않고

아간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박 전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투쟁때에 보여주었던 냉담한 자세와는 달리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는데 발벗고 나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불행히도 패배였다. 이미 실기(失機)를 했기 때문이다. 만일 오세훈 전 시장이 외롭게 싸울때 박 전대표가 그를 도와서 승리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안철수 돌풍' 따위도 일어날 명분이 희박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몇 치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안목이 부족한 박근혜 전 대표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협소하다는 점이

## 大韓言論人會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대한언론인회는 제18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회장은 정기총회 2개월 전에 선거에 관한 일정과 후보등록 절차를 본회 회보(대한언론)에 공고 한다'는 본회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2장 2조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입후보 할 회우는 본회 정관 제13조 (1)항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30인의 추천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 : 2011년 12월 11일 오후 5시까지

\*등록서류 : (1) 추천서(소정양식)  
(2) 등록서 1통 (소정양식)  
(3) 이력서 1통 (명함판 사진 1장)

2011년 11월 1일

社団法人 大韓言論人會

# 在外국민 투표권 ‘從北派’ 개입 우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해외 거주 동포 가운데 한국국적을 갖고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한 공직선거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관련법(2009년 2월 국회통과)에 따라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비례대표)와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가 처음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07년 6월)을 내림에 따라 성립된 이 법은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또는 운영면에 있어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201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8월말 현재 726만 8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내년 총선·대선의 선거권자는 279만 9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46만여명에 이르는 재일동포 유권자의 투표참가와 관련하여 공안당국 및 미디어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일 조총련계의 한국국적 취득자는 4만~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후 40여년간 재일조총련계는 40여만명이었으나 그 동안 32만명 가량이 일본국적 내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90년대 초까지 ‘조선적(籍)’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8만여명. 이들 가운데 약 5만명 정도가 한국방문 목적과 경제활동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이념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2009년 재외국민 투표 관련법 성립 이후 내년 투표를 겨냥하여 한국국적을 ‘위장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공안당국의 추정이다. 실제로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이들 조총련계 중 한국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성행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윤종구 특파원이 일본현지에서 전한 보도(8월 17일자)에 따르면 대법원이 1990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2012년 진보정권수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 특별기고



정구 종

- 본회 회우
- 동서대 석좌교수
- 일본연구센터 소장
-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미 조총련계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5만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지시에 따른 선거공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재일대한민국민단(민단)은 ‘선거참여운동 중앙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공작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투표참

민권을 부정하고 북한을 지지찬양할 뿐만 아니라 무슨 행동이든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한국의 선거에 어떻게 해서든 개입하려 할텐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외통부, 법무부, 선관위 등에서 합동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홍준표 대표도 ‘조총련의 국적세탁’ 문제 등을 비롯한 재외국민 투표의 문제점개선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외부재자 선거인 명부 작성시 심사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지 위하여 선거에 참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9월 14일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합의가 필수적인 이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오는 11월 13일 이전에 법개정의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재외국민 투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관련법 개정안을 도출해낸 이경재 의원은 “앞으로 외부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자격을 엄격히 하는 등 신중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자칫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지적될 수 있으니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4]

## 日조총련계 5만여명 한국국적 취득 ‘한통련’ 앞세워 조직적 활동 움직임

한통련은 기관지 ‘민족시보’를 통해 “2012년 선거에서 반(反)보수 대연합을 구축하자. 진보정당이 약진하여 보수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통련은 이 같은 주장을 앞세운 선거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포자택 방문과 감시용의 독자적 유권자 명부작성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연계된 조총련은 이처럼 한통련을 앞세워 조직적으로 선거공작에 나섰다. 재외국민등록, 한국여권 획득, 투표참여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재일동포사회가 내년의 국내선거에 있어서 북한공작가능성을 두고 긴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종진연석회의에서 “지난 7월 민단행사 참여차 일본에 갔는데 조총련계 가운데 한국여권 받은 사람이 4만~5만명이 되며 이들은 여권만 받아놓고 활동은 조총련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대한

## 美 동포 사회도 한국 정치 오염조짐

미국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 문화, 국민정서, 그리고 언론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나 국민정서가 급격히 변하는 것은 언론마저 종래의 소중한 자산이었던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사회에 정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처럼 보이니, 언론인들에게는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다.

미국의 부자 당이라고 자처하는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국가 지출을 줄여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자의 개인소득세를 70%에서 28%로 낮췄고,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레이거노믹스라고 알려진 이 정책의 결과, 전직 지미 카터에 비해 레이건 정부는 방만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의 업적은 오래 가지 못했다. 미국의 반수가 넘는 국민들은 미국이 더 이상 부자 나라가 아니라 빚 투성이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란 부자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로 민주당 출신으로 당선되어 한국처럼 국민전체가 혜택을 받는 의료보험 제도가 아닌 사설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에 처음으로 국민 전체의 의료보험 정책 도입을 시도하는 등 좀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노력했으나,

## 특별기고



장원 호

- 美 미주리대 명예교수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된 워런 버핏은 “내 비서도 소득의 36%를 세금으로 내는데, 나는 17.4%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외치며, 상위 0.3% 부자에 대한 증세를 촉구하자, 국민의 3분의2가 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버핏 같은 부자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하자마자, 지난 9월 27일 뉴욕에서 기독교의 황포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월가의 중심지인 주코티 공원에 천막을 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자고 외쳤다. 이들의 아우성은 미국의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다.

일부 불만에 가득 찬 시민들의 데모를 마치 미국에서 금방 혁명이라도 일어나는 듯 보도하는 미국 언론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언론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치를 좌우하던 기존 언론은 살아남기에 전력을 다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미국 언론의 권위를 이끌어 오던 뉴욕타임스가 파산 직전에 있다.

정치 현실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많이 앞선 듯하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한국정치는 한국정치의 본질이 바뀐 가장 뚜렷한 역사적 사실이다. 대학도 다녀 본 적이 없고, 그의 생애를 반골로만 지낸 노무현 후보가 한국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3면으로 이어집니다.

# ‘사이버 從北’은 체제위협 바이러스

##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최근 연봉 1억4000만원을 받는 46세 대한항공 조종사가 인터넷 상에 종북 사이트를 만들고 북한 찬양 자료를 올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직장에 다니고, 비행기를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종북 인사’는 적지 않다. 종북 성향의 카페가 10여곳이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북 사이트는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사이버 종북’은 책을 돌려 읽거나 모임 만들기를 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아날로그 종북’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다. 디지털 전파력이 강하고 접근하는 네티즌들에게 무방비·무검증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종북의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상의 자유나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별다른 경계심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종북 카페에는 이를 만든 자생적 종북주의자뿐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프로 친북주의자’가 개입할 수도 있어 위험성은 만만치 않다.

한국 사회는 진보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안보의식이 매우 취약해졌다. 이명박 보수정권이 벌써 3분의 2가 지났지만 흐물흐물해진 안보의식은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30·40대들은 상당수가 북한이나 국가안보라는 문제에 관해 진보 10년 동안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보다는 정권과 사회 탓이다. 이들 중 적잖은 이가 이미 전교조의 편향적인 이념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진보 10년을 맞이 했다.

이들은 2000년과 2007년 남한의 대

통령이 북한 김정일과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은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장면 속에서 북한의 위협성이 제대로 투영되었는가. 상당수 젊은 이들은 천안함과 연평도는 ‘군사적인 사건’으로, 김대중-김정일 그리고 노무현-김정일 회담은 ‘남북의 교류와 공존’으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사건이 중요할까 아니면

### 특별기고



김진  
· 중앙일보 논설위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폈다. 보수·우파·주류는 일관되게 박원순의 취약한 안보관을 공격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박원순이 이겼다. 반(反)권력, 반 한나라당 성향을 가진 20·30·40대가 압도적으로 박원순을 지지한 것이다. 안보관이나 이념이 선거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는 되지 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좌우하는 결정

삼각 파도 속에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분단 66년만에 한반도는 가장 불투명한 운명의 바다로 향해하고 있는 지 모른다.

외부의 불안과 위협 가능성이 증대할 수록 이에 맞서는 공동체의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한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국가의 통일방안에 따라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분열하여 대립하면 주도권은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이 쥔 지 모른다.

‘사이버 종북’은 이런 결속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다. 이들을 막으려면 법적인 조치와 사회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이 긴요할 것이다. 우선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들이 강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대학생들이 주도한 북한 강제수용소 전시회는 신

## 20~40代 편향적 이념교육에 물들어 엄격한 法적용-北실상 제대로 알려야

공존이 중요할까.

젊은 세대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남겨진 진보 10년의 유산이 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의 정권에서 맥아더 동상이 습격 당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시위대에게 공격을 당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런 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여 전히 시위대에게 막혀있다.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내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는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게 입증되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부터 이런 현상은 시작됐다. 당시 선거는 북한 여파가 발견되어 천안함 사건 여파가 강할 때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보수 여당은 패했다.

한반도는 지난해 격동의 시절이 시작됐다. 그리고 내년엔 불투명한 2012년으로 진입하고 있다. 김정은 세습·이양은 과도기여서 북한은 정치적 불안을 안고 있다. 서방 지원이 끊겨 경제적으로도 심하게 고립되고 있다. 게다가 튀니지·이집트에 이은 리비아 전복사태는 북한 권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선한 반응을 끌어냈다.

바이러스는 상당부분 무지에서 자란다. 사회전복을 꾀하는 프로 공산주의자들이야 다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에 좌절하여 막연히 북한을 동경하는 아마추어 종북주의자들에게는 진실이라는 햇볕을 쬌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문제이지만 북한의 그것은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옥의 책임자는 김씨 일가이며 지옥이 언제든지 비상한 형태로 폭발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국문]

### 2면에서 이어집니다.

수 있는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5년 동안 한국의 기존 정치 판도를 한참 흔들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의 변칙(anomaly)에 놀란 시민 덕으로 권좌에 올랐지만,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한국정치의 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월가 시위도 그렇고,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도 모두 공정한 사회를 지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자리를 골라가며 누리다가 정치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기성

정치인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심리는 본인이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없고 역대 연봉의 직장도 없는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서 고액 과외공부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군에도 안가고, 부자집 배우자를 만나서 승승장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대단히 크다.

이런 사회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 수가 많아졌다. ‘종북 좌파’라는 흑독한 표현을 받는 변칙 정치인들은 극좌 사회주의 이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듯하나, 그들은 국민들의 이런 반기득권 정서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오랜 정치 투쟁으로 뛰어난 조직력과 익히 터득한 선동방법으로 한국의 정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국민의 공정성 요구와 선동에 강한 급진적 정치세력이 서울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못난 정치인들은 미국 동포 사회마저 드나들면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다.

금년 미국한인회 연합회장 선거에 수십만 달러가 뿌려진 사실이 미국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한국정치의 한 자리를 넘보는 한국식 교포 정치인들이 미국 이민사회에도 많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고, 돈 많은 부자와 지도층이 먼저 반성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개혁자 정신처럼, 본인만 노력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분열보다는 서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협력하는 기회를 언론이 선도하기 바란다. [국문]

### 본회 기우회 연말 바둑대회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오는 11월 25일(금) 오후 2시 무교동 서울기원에서 2011년을 결산하는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A조(1~3급)와 B조(4급 이하)로 나누어 실시되며 대회후 송년

만찬이 있을 예정이니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총무 김윤석  
(010-2880-0674)  
서울기원 : 02-777-3242

### 회우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강승훈 회우 = ‘新聞街道’ - 한라의 메아리(1978)

송선무 회우 = ‘마가레트 트뤼도 이성을 넘어서’ (번역판 1979년)  
‘인물로 본 중앙 100년’ (2009년)

황원갑 회우 =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2011)

# ‘巨人 千寬宇’ 큰 발자취 되새겨

## 추모문집 출판 기념회 대성황

후석 천관우 선생 추모문집 ‘우리시대 언론 사관 - 거인 천관우’ 출판기념회가 지난 달 25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대한언론인회와 서울언론인클럽이 공동 주최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후석 선생의 미망인 최정옥 여사를 비롯하여 이번 추모문집 간행위원장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고문과 언론계, 학계, 정계 인사 그리고 후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강승훈 서울언론인클럽 회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시대의 언론 사관 - 거인 천관우’ 추모문집은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언론인과 사학자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후석 천관우 선생의 큰 족적을 먼저 되돌아보고 이어 1부 언론인 천관우, 2부 사학자 천관우, 3부 민주투사 천관우, 4부 인간 천관우로 나뉘 62명의 필진이 7백여 페이지에 걸쳐 후석을 재조명하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이병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강승훈 서울언론인클럽 회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와 남재희 전 서울신문 주필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후석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사들. 가운데 앉은 분이 천관우 선생 미망인 최정옥 여사.



추모열기로 가득찬 출판기념회장.

의 인물됨을 설명하는 언론계에서의 일화들을 소개했고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사 연구에 특히 고대사와 조선사 부문에서 후석이 남긴 독보적 이론들을 설명하는 축사로 이어졌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후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후석 선생의 추모문집 출판 축하 인사가 있었다.

이어 계속된 제26회 서울 언론상 시상식의 수상자는 모두 후석 천관우 선생 추모문집과 관련된 인사들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 고천관우 선생, 한길상 수상자에 권도홍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그리고 이번 출판에 공로가 큰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정진석 외국어대 명예교수, 민현구 고려대 명예교수, 이병대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맹태균 전 경향신문 편집부장이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후석 천관우 선생은 1951년 언론계에 입문하여 민족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동아일보 주필을 거쳐 68년 신동아 필화사건으로 언론계를 떠났다. 그 뒤 후석은 민주화 운동과 한국사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기고 1991년 타계했다. [본회 부회장] 記

李炳大(本회 부회장) 記

# 영화 ‘도가니’ 후폭풍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않게 하려 한다”

황동혁 감독의 영화 ‘도가니’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성폭행 당한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제도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절규한 대사다. 영화 속의 이 대사는 도심의 빌딩을 관통하고, 시골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대한민국 사회에 메아리쳤다. 영화가 상영된 이후 그 동안 묻혔던 진실은 재 점화되고, 사회적 후폭풍이 거세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만 했던 영화 한 편이 굳게 닫혔던 사회의 빗장을 열었다. 영화 ‘도가니’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영화를 발명한 루미에르 형제가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화 한 편의 사회적 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학교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교직원들의 장애인 학생들 성폭행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문이 거세게 몰아치자 그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켰던 관련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입을 열기 시작했다. 뒤늦은 행동으로 그 동안의 잘못이나 방관적 자세를 면피하려는 속셈인지 몰라도 어쨌든 반가운 현상이다.

시민단체가 찾아가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방과 후 일’이라고 시청에 책임을 전가하던 광주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전체 교사 20명 중 6명을 해임·정직 등 중징계 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비등한 여론과 비리가 넘쳐처럼 드러나자 마지못해 뒤늦게 폐교조치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영화 속에서 돈을 받고 학교 비리를 묵인하며 구속된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석방 될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 형사 등 관련경찰을 철저히 조사 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교육부는 120만 교사들의 성폭행전력을 조사한다고 요란한 뒷북행정의 나팔을 불었지만 그 후 진행 소식은 오리무중이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성폭행법은 가중처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인권침해고발 이후에도 인권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

## 時 論



### 김 화

- 본회 전문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현 데일리 리뷰 논설실장

다고 직권조사를 약속했다. 또 인화학교에 근무했던 직원은 장애인 학생을 굶겨 죽인 후 무등산에 묻었다고 오래 전 일을 폭로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터진 독의 붓물처럼 그동안 간혀있던 불법과 비리들이, 그리고 후속 대처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쏟아졌다. 일시적 불이나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영화는 심한 안개가 낀 날 무진시에 있는 장애인학교 미술교사로 취업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짙은 안개로 자동차의 시야를 불투명하게 한 첫 장면은 미술교사(공유)의 앞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예시한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안개는 주인공의 인생을 영롱한 방향으로 이끈다.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남자 주

인공은 처가살이의 서울을 떠나 오랜만에 고향인 무진에 와서 여선생을 사귀고 안개가 자욱한 날 바닷가 모래밭에서 정사를 벌이는 일탈행동을 하고 자신의 용기에 놀란다. 소설에서 무진은 순천이다. 영화 ‘도가니’에서 남자 주인공 미술교사는 한 아이가 딸린 이혼남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 대학 은사의 추천으로 무진시에 있는 장애인 학교 미술교사로 취업한다. 취업하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안개 때문에 차를 추돌당한다. 추돌한 차의 운전자는 무진시 성폭력상담 시민단체의 여자 간사(정유미)다. 미술교사는 안개 때문에 자신의 차를 추돌한 시민운동 여자 간사를 운명적으로 만나 도움을 받으며 교장 등 선생들의 학생들을 상대로 자행한 성폭행의 비리를 고발하고 학교에서 쫓겨나서도 외로운 투쟁을 벌인다. 영화에서 무진은 광주광역시가 배경이다.

1990년대 한국 영화계는 조폭들의 액션과 페이스즈 정의감(?)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물 영화를 통해 사학비리를 고발했다. 이런 유의 영화에서 사학비리는 오브제였고 주 장르는 조폭코믹액션이었다. 그러나 ‘도가니’는 광주광역시

5면으로 이어집니다.

# 이 시대 ‘참언론인 표상’ 기리다

## 제 20회 ‘대한 언론상’ 시상식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제20회 대한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대한언론상은 SBS 보도제작부 김정운(金正濬)기자(취재보도 부문)와 중앙일보 김진(金璫)논설위원(논설 논평부문)이 받았다.

SBS보도제작부 김정운 기자는 2010년 1월부터 SBS 보도제작부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별히 SBS 뉴스 추적 충격실태 ‘국가지협이 샌다’(580회)에서 의사와 교사 등 전문직 국가시험의 부정과 답합의혹을 심층 취재해 그 충격적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고발함으로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의 기명 칼럼 ‘김진의 시시각각’을 통해 항상 투철한 국가관과 논리 정연한 문장으로 국정 현안을 심층 분석 평가해 독자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가적 중대 현안 및 현상을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시각으로 사안의 실체와 의미를 올바르게 깊이 있게 진단, 논평하는 등 수준 높은 칼럼을 다수 집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수상자 수상 소감

김진 논설위원 = “한반도에 는 격변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좋은 것은 희미하고 옳지 않은 것은 크고 뚜렷하게 춤을 추지만 국학과 아세는 오래가지 못 한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사명이 중대하다고 생각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 및 심사위원들과 기념촬영.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진 논설위원, 여섯번째 김정운 기자.



인사말 하는 흥원기 회장.

김정운 기자 = “‘국민들에게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은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이것이 저희 취재의 결론이자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었으며 석달 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취재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운중(본회 상임이사) 기

축하화환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한국신문협회 회장 김재호  
관훈클럽 총무 정병진  
동곡재단 이사장 김준하  
서울신문사 사장 이동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 인사말씀

흥원기 회장

우선 제20회 대한언론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두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언론상은 대한언론인회가 자존심을 걸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언론상입니다. 언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언론인에게 상을 줌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87년 4월 25일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언론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바로 이 상의 신뢰와 권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언론상을 수상하신 두 분 모두 언론 본연의 책임이 자유언론을 통해 사회공익을 추구하는데 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진정한 언론의 역할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볼 때 수상자 두 분의 공적은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인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는 1977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로 일간신문사와 방송 및 통신사 출신 원로 언론인들을 주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월간 ‘대한언론’ 발간과 언론관계 연구발표 및 출판 사업 등 많은 공익 활동을 통해 자유언론 본연의 사명을 일깨우는데 나름대로 공헌해 왔다고 자부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언론인회는 원로언론인들의 구심체답게 공정언론지향과 참다운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 4면에서 이어집니다.

에 있는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모델로 했다. 소설을 영화화했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스토리를 전개했으며 인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며 수치스럽기도 한 성폭행으로 억압당한 장애인들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견고한 부패사슬을 직격탄으로 고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화를 보면서 시종 분노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사학재단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매년 40억원이라는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

있던가에 있었다. 쌍둥이 중 형은 교장, 동생은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형제가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자행한다. 또 남자 교사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성폭행한다. 이 남자교사의 성폭행에 시달린 남학생은 철로에서 자살한다. 학교 기숙사 여자사감은 교장의 애인이다. 여자 사감은 교장에게 성폭행당한 여학생에게 “교장에게 꼬리치지 말라”고 협박한다.

미술교사는 취임한 후 교장과 행정실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강요당한다. 공식가격이 1억원인데 교장 친구인 교수의 추천이라 반으로 깎

아준다고 했다. 미술교사 어머니는 전세금을 빼서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해준다. 미술교사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교장 행정실장의 나쁜 짓을 몰라서는 감고 있는 줄 아느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못 본 척 하고 있을 뿐이다. 너도 교장한테 잘 보여야 한다. 화분이 라도 사들고 가라”고 읊소한다. 미술교사는 어머니 뜻에 따라 화분을 사들고 교장실로 갔다가 비리를 목도하고 화분을 복도에 팽개친다.

미술교사는 시민단체 여 간사의 도움을 받아 교장과 행정실장, 남교사를 TV방송을 통해 고발하고 법정에 세운다. 교장 등 피의자들은 혐의사실을 부

인하고, 특히 교장은 “나는 교회 장로이고 지역사회 유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겠느냐”면서 항변까지 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사실적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에서 범죄자를 석방한다. 그날 밤 룸살롱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교장 등과 석방파티를 하면서 “정의는 살아있다”고 포효하며 술잔을 부딪친다.

나는 극장 문을 나서면서 내 자신에게 물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그리고 가슴 속에 검은 비를 뿌렸다.㉠

# 反월가시위 한국에도 ‘발등의 불’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부이며 상징인 월 스트리트에서 9월17일 시작된 시민들의 반금융자본 시위가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월가를 점령하자(Occupy Wall Street)” “1%에 맞선 99%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했던 월가의 시위는 곧 국제적 연대망을 구축했다. 지난 10월 15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선포, 이날 세계 80여개국 1500여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반금융자본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범세계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막대한 규제금융 퍼부어

시위는 탐욕스런 금융자본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99% 국민의 축적된 불만에서 비롯됐다. 미국 정부는 2008년 9월 투자는행인 리먼 브라더스사 파산 이후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규제금융을 파산 직전의 금융회사들에 퍼부었다. 연방준비은행(FRB)으로 하여금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도록 한 양적 완화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부실 금융기관에 수혈한 것이다. 그런데도 월가의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들을 비롯한 금융자본가들은 거액의 연봉과 배당을 챙기면서 추가 규제금융을 연방정부에 요구할 만큼 낮 두꺼운 행태를 보였다. 금융위기로 실물경기가 얼어붙고 부동산가격이 급락하

자 많은 붕괴생활자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책임져야 할 금융자본가들(1%)은 국민혈세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골몰하니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금융기관을 통제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정부가 금융자본을 상징하는 월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점도 국민 저항을 불러온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금융기관에 지원한 정부의 천문학적인 규제금융과 최고경영자의 고액연봉 및 막대한 배당은 결국 99%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민은 이 사실에 더욱 공분을 느끼고 현실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 ‘워킹 푸어’ 경제적 고통 커

여기서 반금융자본에 대한 시위의 배경을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추려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매우 가난한 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 ‘워킹 푸어’(working poor·근로빈

곤층)로 전락한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고통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의 최고 부유층 1%의 탐욕은 엄청나게 커졌다. 세계 곳곳에서 분노한 이들의 시위 사례가 있었다. 아랍의 봄, 스페인의 분노 시위, 칠레의 학생 시위, 미국 위스콘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수호 시위 등이 그것이다. 시위대들은 무엇을 원하는 질문을 받으면

“정의”를 원한다고 답했다. 뉴욕 타임스가 10월8일 사설을 썼다. 시위대가 “분명한 메시지와 특정한 정책적 처방을 갖고 있으며 그 운동은 젊은이들의 봉기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은 망가진 경제의 특징이다. 그 경제는 금융 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 보다는 투기, 부당

## 금융자본 지나친 이익 추구 개선돼야 정치적 이념 개입엔 순수성 잃을 우려

한 가격 인상,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자본의 횡포 이전에 미국 국민의 소득격차는 양극화를 달려왔다. 레이건 정부 이후 지난 30여년간 대규모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1970년대 말까지 미국 최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은 국민소득의 10%였는데, 최근에는 23%에 이를 정도로 소득격차가 벌어졌다. 티 파티(Tea Party)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부자감세’ 논란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보수세력과 이들을 지지하고 있던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분노로 표출된 게 ‘월가 점령’ 시위인 셈이다. 따라서 시위폭발은 당연한 귀결로 공감할 만한 분위기다.

## SNS 이용 전 세계로 확산

반금융자본 시위가 미국 월가에서부터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인터넷 상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힘입은 바 크다. 인터넷이 메시지를 수많은 세상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파시

## 時 論



###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 세종대 석좌교수

켜 행동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같이 발달한 정보기술(IT) 수단이 없었다면 국제적 공감대가 단시간내 이루어질 수 없었으리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각 개인의 의견이 네트워크 상에 모여면서 월가 시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고 국제적 행사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행동의 날로 선포됐던 10월15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1차 집회가 개최된 데 이어 2차 반 금융자본 시위가 일주일 뒤인 22일 서울광장 등에서 열렸다. 노동계와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99%의 행동 준비위원회’는 ‘서울을 점령하라(Occupy Seoul)’라는 가치를 내 건 2차 집회에서 금융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금융투기 자본들은 국민의 공적자금을 무시하고 은행과 기업 사유화를 통해 배불리지만 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 한국 공적자금 160조원 지원

1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살아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월가의 시위와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예대마진과 수수료 등으로 인해 얻은 막대한 순이익으로 50%가 넘는 배당을 나누어 갖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부정, 키코사태로 인해 불거진 은행들의 비도덕성, 매출비중이 10%미만에 불과하다면서도 소규모 상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카드사들의 사회적 무책임성 등은 반금융자본 시위의 표적이 될 만하다. 그러나 월가로부터 전래된 반금융자본 시위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이념을 띠고 반 정부 성토로 변질되는데 있어선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반금융자본 시위는 어디까지나 금융자본을 친금융자본으로 만들도록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 자본주의 체제 바꿀순 없을 듯

어떻든 미국도 그렇고 각국에서 월가 시위의 발전 양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것이 큰 관심사인데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한 마디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위대의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조직적인 체계나 파괴력을 갖추지 못해 금융부조리나 모순을 시정 하기 위한 분위기로 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도 2011년 9월17일 촉발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베트남 전쟁 반대와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1968년 봉기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시민저항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공간이 큰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문]



##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당신을 위한 자동차를 생각합니다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기술, 현대모비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기술이 보입니다



*driving science*

# 네거티브 공방에 묻힌 후보 '검증'

10·26 서울시장 보선 만큼 후보 검증이 이슈화한 선거는 드물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범좌파(자유선진당이 빠졌으니 범야권이 아니다.) 무소속 후보로서, 시민들이 깊이 몰랐던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변호사의 돌연한 정치권 진입 탓이다. 그가 10여 년 전 '총선국민연대'라는 민간조직을 엮어 후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보면 정치신인인 그에 대한 검증은 자신이 던진 부메랑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종류의 사특한 부패와 특혜가 기득권으로 관을 친다. 그래서 후보 검증은 더욱 정밀해야 한다. 공약을 내세운 후보의 사익 추구, 부동산 재산 증식, 병역 의혹, 자녀 전학 의혹, 시민 모금의 좌익단체 지원 의혹, 애국가를 민중의례로 대체하는 이상한 국가관 등 후보들의 언행을 발가벗기는 것은 정당한 검증이다. 그럼에도 이런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높았다. 네거티브란 후보의 공무수행 자질과 무관한 인격권 침해와 가족들의 무모한 신상 털기일 것이다.

한 일간지 웹의 네티즌은 이렇게 갈파했다. "검증은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려는 작업이고 네거티브는 단순한 인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흠집 내기다. 네거티브는 하면 안 되지만 검증은 꼭 필요한 절차다..." 후보들은 여섯 차례 TV토론에서 대체로 매너를 지켜 정책토론이 되었지만 자질까지 검증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박 후보의 거부로 여러 TV토론이 좌절된 탓도 있다. 장외 검증 대리전이 더욱 열기를 띠는 이유가 된 셈이다.

신문들은 검증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였지만 네거티브의 전형은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벌금형을 받았던 박원순 후보라는 의견이 부각됐다. 조선일보 10월17일 나 후보 인터뷰 기사에서 "박원순 후보는 모든 게 다 모호한 사람으로 보통사람과는 다르다... 과거 낙천·낙선운동을 하면서 강도 높은 검증의 칼을 들이쳤고 불법적 칼까지 들이쳤다"며 "그런데 자신은 검증을 외면하면서 이를 네거티브로 매도하는

데 시장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 후보가 추가로 예정된 토론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후보들을 알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0월 11일 "주로 여권이 주도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은 보수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나라당 지도부와 나경원 후보 캠프가 확대 재생산하는 방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김대업이 날조한 병역 네거티브로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이 민주당 노무현에게 패배한 사건일 것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최근 "가장 더러운 네거티브로,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했다. 병역의혹 쟁점은 보수층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학력위

달했다.

검증 논란에 대해 일부 신문이 사설을 썼다. 문화일보는 10월17일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에서 후보의 국가관·이념적 성향·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검증 세례를 네거티브라고 몰아붙이는 건 예봉 회피 전술이고,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역시 "2000년 총선 당시 후보검증을 내세워 전국적인 낙선운동을 펼친 박 후보야말로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네거티브의 전형을 보인 장본인"이라고 비판하고 "박 후보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면 그의 반대한민국관도 밝혀질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임은 물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친북

성향임도 알 수 없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南民戰)사건 등 간첩사건 대부분이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그의 과거 발언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다 제적되 고도 서울대 법대를 다닌

것으로 행세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도 검증의 결과다"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10월13일 사설에서 "소모적인 이념·색깔 공방이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맥락과 진의를 왜곡한 공격 등은 지양해야 한다.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행동과 정책은 대체로 이념에서 나온다. 정책 논쟁의 대표적 사례인 학교 무상급식도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 또 남북대치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이념과 국가관 검증이 최우선 순위라고 보는 시민들도 많다.

공직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검증은 운명의 관문이다.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장 상, 장대환, 김태호 등 국무총리 후보들이 검증으로 낙마하는 것을 보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후보 검증엔 성역이 없다. 후보자나 정당은 물론이고 권력 감시 기구인 매스컴도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라고 해서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4]

## 박원순 언행싸고 다른 잣대 동원 이념-국가관 제대로 살피지 못해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색깔론'도 다시 나왔다. 박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다. 정부 발표를 못 믿는 사람도 있다. 이 정부 들어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네거티브 공세는 판을 뒤집으려는 추격자의 선거 전략이다. 여당은 색깔론·병역 등 보수층에 민감한 쟁점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하고, 판세를 뒤집겠다는 복심이 읽힌다. 하지만 검증과 네거티브는 '양날의 칼'이다. 여당은 6·2 지방선거 때 천안함을 이슈화했다가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야권의 반격에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보선을 정권 재창출의 전초전으로 인식한 좌파들도 정책대결을 팽개치고 좌파 언론이 생산한 나경원 후보의 비방거리를 증폭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진흙탕처럼 타락했다. 국회의원과 문화부장관을 역임한 김한길이 트위터질로 나 후보를 '나자위'라고 비방했으니...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백미는 전과자

조는 당선무효의 사유이니 최우선 검증 대상인 것이다.

중앙일보는 10월18일 기사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측의 잇단 검증 공세가 다른 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던 박 후보도 급기야 '역사상 가장 추악한 네거티브 선거'라고 반발하면서 강경대응을 다짐하고 나섰다"고 썼다. 네거티브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 후보의 맹추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 "16대 총선 때 박 후보가 주도한 '낙천·낙선운동'은 그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나라당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형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이었다. 정치권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반발했지만 끝까지 86명의 낙선운동을 벌여 59명(68.5%)이 낙선했다. 박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썼다." 그를 '네거티브 운동의 전형'으로 지목하면서도 네거티브의 위력을 과소 평가했다는 그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전

## 본회 산악회장에 정운종 회우 추계 정기산행 뒤 총회서 선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지난 10월 14일 30여명의 회우가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 신동면에 자리한 금병산에서 추계 산행을 가졌다. 이날 산행 후 가진 임시총회에서 안종우 회장 후임으로 정운종 본회 상임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최귀조 이사가 감사를 맡았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본회를 비롯해 김재영 조창화 안종우 정운종 회우가 찬조금을 회사, 행사를 도왔다.

이날 신임 정운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불원간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를 개설(11월 20일 오픈 예정), 회원들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종 회장

새로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고 문 : 김영호 김재영 송두빈 윤익한 이상우 조창화 지용우 홍원기 황대연

자문위원 : 권영국 김건이 김세경 박 실 성낙오 신대근 안평선 이태영 임한순 최상목

명예회장 : 안종우

회 장 : 정운종

부 회 장 : 강진형(운영담당)

이상호(산행담당)

감 사 : 최귀조

총 무 : 나용경



금병산 입구 김유정 생가에서 기념촬영.

# 수준 미달 말싸움터 된 TV토론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전 서울대 정 옥자 교수의 역사에세이란 책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역사의 가벼움’이란 제목의 글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사마천은 불후의 역사서 사기(史記)를 쓰면서 공자가 저술한 역사서 춘추의 정신을 춘추필법으로 이어 받았는데 시시비비(是是非非) 정신과 정통론이 그 핵심이다.

우리의 역사문제는 좌우 이념 싸움에서 균형 감각을 잃고 편협하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흑백논리가 역사적 평가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자기 역사에 대한 지나친 부정과 지나친 긍정사이에서 분열에 빠진 우리의 실정은 딱하기 그지없다”고 정교수는 토론했다. 지난 10월 1일 밤 정교수가 딱하다고 한 일들이 고스란히 TV화면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사실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시시비비는 실종됐고 자기 이념을 내세우는 아집과 현란한 말장난이 휩쓸고 있는 TV프로그램은 공영방송 KBS의 심야 토론이었다.

주제는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역사교과서 논란’이었다. 다른 방송의 역사교과서 관련 토론 프로그램을 검색해보니 하루 전 날 한국정책방송 KTV가 ‘쟁점 토론,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역사교과서 개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 방송을 내보냈다.

두 방송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소리들이 난무했다. 공영방송과 정책방송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 방송들이 왜 저런 싸움터로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이 토론프로그램들은 패널들 스스로가 털어 놓는 말에서부터 그 무익함이 드러나고 있었다.

KBS 심야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은 역사 교과서 문제가 왜

논쟁거리가 되느냐고 했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생뚱맞은 논쟁이라고 말했다. KTV에 출연한 하태경 열린 북한방송 대표는 이런 역사문제 논란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말들을 모아보면 논쟁거리도 되지 않고 생뚱맞고 황당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사가 사람들을 모아 토론을 만들었다는



## ‘歷史 교과서 논란’ 패널 궤변 난무 갈등 조장 나쁜 방송 전형 보는 듯

이야기가 된다.

KTV의 박찬숙 앵커는 서두에 20여명의 의원들에게 방송출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섭외가 되지 않아 의견이 확실히 다른 네 분을 모셨다고 밝혔다.

바뀌 말하면 덜 적절한 인사들이 방송에 출연했으며(실제로 출연자들이 수시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냈다.) 의견의 화합과 조율보다는 이견이 분명한 인사들의 싸움터가 될 것을 계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KBS 심야토론의 출연 패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강창일 민주당의원 그리고 공주대학 이명희 교수와 주진오 성균관대 교수였다.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면서 힘들고 혼란스러웠다. 해박한 정치적 식견과 역사지식이 동원됐으며 이념으로 포장된 궤변들이 쏟아졌다. 패널들의 말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난해한 패널들의 미사여구(美辭麗句)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솔직한 느낌을 말하고 평론하기로 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자유민주주의로 할 때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 못했고 ‘현대사 교과서가 왜, 어떤 문제가 돼서 바뀌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헐뜯고 특정 단체와 인물들을 욕설에 가까운 정도로 폄하하는 자세는 시청자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쳐졌다.

토론의 내용을 지켜본 결과를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란 말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문제는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인사들의 불만을 살만한 절차적인 요소는 존재한다는 것으로 종합적인 정리가 가능한 토론이었다. 그 내용 자체로는 별것 아니고 난리 떨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갈라진 패널들의 의식과 이념과 태도였다.

비행기 조종사, 군인, 교사, 공무원까지 종북 사이트를 만들고 드나들면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라고 기술할 때 당연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동질감을 느끼거나 연상이 가능하다는 개연성마저 외면하려

했고 시시비비는 논외로 밀려났다.

KBS 심야토론의 백미는 방청객의 질문이었다. 한 대학생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으나 패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고 사회자가 챙기지도 않았다.

여대생이 민주주란 말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왜 그렇게 발끈하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날카롭게 질문했으나 답변하는 야당의원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얼버무리는 것이었다. 황설수설이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와 하태경 열린북한 방송대표, 전교조 부위원장 한만중씨와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 토론으로 참여한 KTV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말장난이 난무했고 창피한 수준의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기도 했다. 진보성향 인사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고치려 한다는 말을 되풀이 했고 절차상의 문제와 개정안을 건의한 한국현대사학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감까지 드러내는 것이었다.

박찬숙 앵커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의견이 확실한 패널들은 애당초 토론하기 보다는 자기 고집을 떠벌리기 위해 TV에 나온 사람들이었다.

토론 내용과 패널들의 자세와 태도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과정과 결과가 뻔한 데 방송사들이 그런 주제에 그런 인사들에게 싸움판을 만들어 준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뜻을 모으고 화합을 다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다투고 갈등하고 싸움질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부추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과 갈등을 키우는 방송은 나쁜 방송인 것이다. [4]

### 회우들이 펴낸 新刊

#### 황원갑 회우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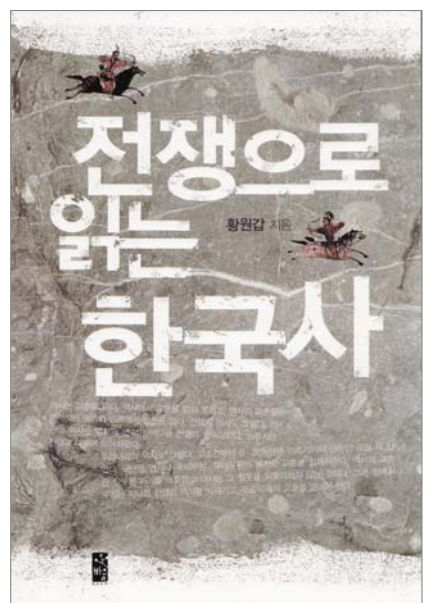
중견소설가이며 역사 연구가인 황원갑(黃原甲)회우(전 서울경제 문화부장)가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동안 작가와 언론인 생활을 해오며 수집한 자료와 현장 답사를 통해 취재해온 것을 지난 한 해 동안 집필한 끝에 세상에 내놓은 역저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전쟁을 통해 오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교훈을 얻자고 강조한다. 우리 역사상 얼룩졌던 전쟁사를 되새겨보고, 이를 국난 극복의 거울로 삼자는 것이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사를 재조명하자는 것이다. 이책은 5,000년 한국사를 접점이 이어온 주요 전쟁을 시대순으로 엮었다.

이 책에는 2,000여 여 년 전 고조선과 한(漢)나라 간의 전쟁부터 고구려와 한(漢)·수(隋)·당(唐)과의 전쟁,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신라 진흥대왕의 정복전쟁, 백제와 고구려의 망국전, 나당전쟁, 후삼국쟁패전, 발해건국전, 고구려의 대거란·대여진·대몽전과 왜구소탕전, 여원(麗元)연합군의 일본원정, 조선조의 대마도정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근세의 항일의병전과 독립전쟁까지 우리 역사를 점철했던 전쟁사가 기술되었다.

저자는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역사의 통렬한 교훈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다. 현대는 격변의 시대, 격동의 시대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무한경쟁시대다. 경쟁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낙오되고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대다. 무력전이든 경제전이든 전쟁은 승리를 전제로 하고, 패배는 곧 죽음으로 통한다. 이와 같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십과 더불어 철저한 역사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



# 부당한 조직-권력 횡포 거부하는

##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lt;40&gt;

회우초대석

李度珩

인터뷰 글·사진 이규

우리나라 진보세력은 활력이 넘치고 보수 세력은 늙었다. 진보세력이 희망 비행기로 제주 강정마을로 집결하고, 희망버스로 부산 한진중공업사태에 개입 한 뒤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기동성을 발휘할 때, 보수진영은 항의집회로 맞불을 놓을 뿐 왜소하고 미약하다. 진보세력이 트위터로 대중들에게 파고 들 때 보수 세력은 대중과의 소통은 완행열차다. 진보 세력들이 목청을 높이며 편 가르기를 하고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도 보수진영은 우국충정의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만 낼 뿐 무기력하다. 우리사회가 한 쪽으로 기울지 않은 것은 그나마 행동하는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 개혁하는 보수 앞장

“부당한 조직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영원한 자유인’ 李度珩 회우는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보수다. ‘개혁하는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22년째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는 그를 지난 20일 프레스센터 1층 커피숍에서 만났다. 반백의 머릿결, 회색정장에 노란 실크넥타이, 보랏빛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노신사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79세. 당뇨로 음식을 조절하고 하루 만보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말문을 연다.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극우라는 말입니다. 해방 후 신탁통치 시절 공산주의 사람들이 반대세력인 우익을 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가 극우 아닙니까?” 그는 오히려 “종북·좌파세력의 시위문화가 극좌적이지 않느냐”며 반문한다. - ‘한국논단’을 창간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나는 병영 생활 14년의 인생 1모작과, 신문기자 28년의 인생 2모작을 바탕으로 정통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종북·좌파를 질타하며 인생 3모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87년 6·29민주화 선언이후 내가 보고 느낀 나라와 사회는 별경계 물들어 가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기존의 가치는 모두 전도되고, 불세비기 혁명이나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케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도덕의 파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가슴이 무겁고 착잡했습니다”라고 회고하면서 “파괴적, 혁명적 작용에 반동할 보수정당에 기대를 걸 수 없었고, 언론은 새 권력에 영합하기에 바쁘고, 지식인들은 좌고우면 눈치만 살피는 현상이 안타까워 보수의 힘을 모을 보수우파신문이나 시사월간지의 창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보수우파신문창간은 시도해 보셨나요?

“몇몇 지식인과 재벌급 기업인들을 설득해보았지만 난색을 표명하면서 월간잡지를 만들어보라며 약간의 창간기금을 내놓았어요.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한국논단’의 주주가 되기로 했지만 본인 명의는 드물고 부하 명의를 내 걸 정도로 눈치를 살폈지요”

- ‘한국논단’ 발행은 순조로웠는지요?

“창업 멤버는 7명으로 기업에서 각 2500만원씩 출자했고, 나도 1000만원을



부당한 조직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영원한 자유인’ 李度珩 회우.

## ‘한국논단’ 22년째 발행… 左派 고소·고발로 6·25 참전→통역장교 거쳐 記者로… 대쪽같은

내놓아 1억 8500만원을 모았어요. 그 뒤 일부 대기업과 소기업, 개인 등 주주가 50명으로 늘면서 11억 800만원으로 출범 했습니다”

### 제작비 절반 아내도움 커

-창간은 1989년이었지요?

“맞습니다. 그 해 8월 20일 고고의 성을 울리며 1만부를 찍었지요”

-창간호의 독자 반응은?

“시판결과와는 비참했죠. 전국 서점에서 겨우 250부가 팔렸어요.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양호민 선생이 전경련을 찾아가 창간 취지를 설명한 결과 매월 2000부씩 사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 ‘한국논단’ 설립 주역으로 1992년부터 발행인 겸 대표이사를 맡았고, 22년 동안 유지해 온 걸 보면 저력이 대단합니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제작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오피스텔 한 칸을 빌려 숙식을 해결하면서 만들고, 직원

없이 필요 할 때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독자관리와 발송 등은 아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 ‘한국논단’을 발행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요?

“진실을 밝히고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7년 2월 호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글로 민노총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1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것이 형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소당한지 5년 만인 200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도형의 손을 들어줬다. ‘公的인 존재의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 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한국 언론의 승리였다.

1997년 10월 8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국논단 주최로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자민련 김종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민주당 조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차례로 나왔고, 3개 지상파 방송이 생중계했다. 그해 12월

김대중 후보가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때를 전후하여 경실련,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도형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청운동 집(당시 시가 6억원)을 가압류했다. 출국금지도 당했다.

### 원칙 신념 누가 뭐래도 안꺼여

정권이 바뀌면서 새정치국민회의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이도형을 형사고발했다. 그동안 국민회의측에서는 똑같은 사안으로 그를 세 번 고발했으며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나 같은 사항으로 네 번째로 고발당한 것. 검사로부터 불기소됐던 사건은 이때부터 검찰항고기가, 검찰 재항고기소명령,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7년 5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다. 가압류 당했던 집은 경매에 부쳐졌다. “평생 글 쓰고 책 내고 강연 다니며 번 돈으

# ‘영원한 自由人’

度珩

- ‘한국논단’ 발행인 겸 편집인
- 전 조선일보 외신부장 · 논설위원
- 전 관훈클럽 총무

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로 마련한 보금자리를 빼앗겨 빈털터리가 됐다”며 씁쓸하게 웃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私怨은 전혀 없어요. 할 말은 많지만 故人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DJ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거짓말, 그리고 대북정책입니다.”

이도형 회우는 2007년 ‘반골 이도형의 自傳的 현대사 조선인·한국인·비한국인’을 펴냈다. 책 말미에 그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가 소상하고 다양하게 기술되어 그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현 고문)은 ‘이도형은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獨不人’이라고 정의했다. ‘수많은 회유와 타협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에 나섰다.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도형 대표는 “대표적인 반 좌익 인사인 박 전 총장에 대한 탄압을 물리치기 위해 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25시’ 주인공 모리츠 님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도형 회우는 서울공업 5학년에 다니던 열일곱살 때 6·25가 터져 제2국민병으로 징집됐다. 대구에서 단기 훈련을 마치고 군번 0183900을 받은 육군이병이다. 몸이 불편해 의병제대를 했으나 미흡한 병무절차 때문에 군 복무경력이 깔끔하지 않자 군 장교 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군복무를 마친 특이한 병력 소유자다. 게오르규의 ‘25시’ 주인공 모리츠처럼 강제노동과 전범, 또 다시 체포되는 비운의 전철이 비슷하다.

-게오르규의 ‘25시’ 주인공 모리츠를 많이 닮았습니다.

“의병제대 후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왔고, 굶주림에 지쳐있었죠. 미군 병사를 만난 계기로 미 3사단 10포병대대 전방관측병의 일원이 되어 계급도 군번도 없는 전투병으로 9개월 동안 전선을 누비다가 파편을 맞아 후송됐습니다.”

포대장은 서울에 가면 통역으로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천서를 써 주었다고 한다. 1951년 12월 추천

서를 들고 군사정보대 본부(MIC·현 강북삼성병원자리)를 찾아갔다. 영어시험을 본 결과 ‘2급 통역’으로 합격하여 근무했다. 그러나 의병제대를 입증할 병역필증을 땔 수 없고 병역미필자로 분류되어 통역생활이 여의치 못해 통역장교 후보생시험에 응시했다. 1953년 9월 대구 육군고급부관학교에 입교, 육군중위로 임관하여 장교로 두 번째 군복무를 하게 됐다. 1964년 11년 5개월 간의 정훈장교를 마감하고 전역했다.

-전역과 동시에 조선일보에 입사하신 건 특채였나요?

“정훈장교시절인 1960년 4월 28일 조선일보 견습기자 시험을 쳤습니다. 5월 14일 1차 합격을 했으나 제대할 가망이 없어 2차 시험은 포기했던 게 조선일보와의 인연이 됐습니다.” 그는 조선일보 입사 후 주월특파원, 주일특파원, 외신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치며 28년 동안 펜으로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해 왔다. 외신부 기자 시절, 이영희 부장과 갈등을 겪었고, 좌편향 데스크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고며 전쟁터인 월남 특파원을 자원할 정도로 개성이 강했다.

## 정통보수와 결집에 앞장

-신문기자시절 기억나는 특종은?

“1981년 9월 일본 특파원시절 일본교과서 왜곡기술 폭로였습니다. 일본 문부성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

## 生活斷想

# 떠벌리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나는 직업적인 연사는 아니지만 가끔 말을 한다. 직업적인 시사평론가는 아니지만 가끔 글을 쓴다. 그러면서 자주 무력감에 사로잡힌다. 누구한테서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이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들이 들어주건 않건 간에, 읽어주건 않건 간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 나는 이것으로 수입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미 80이 가까운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종사했던 언론계에는 나보다 월등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 비하면 언제나 하수였다. 내가 잠시 몸담았던 정계에도 인재들이 많았다. 그분들은 이제는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 그럴까.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지금은 ‘침묵이 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거리에서, 언론에서 나도는 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들어보나 마나 한 ‘잡음’이다. 경제가 어떻다고 떠들어대지만 우리가 떠들어 댄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세 값을 내려줘야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렇게 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없다. 대학 등록금을 낮춰준다고 말할 하지만 그것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가 어떻고 어떻다고 말하지만 언제는 양극화가 없었던 일이 있는가. 특권계급은 공산국가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 심하다.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 쌀을 줘야한다고 말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북 간의 현안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 발간된 한 유력 신문의 1면 톱기사 제목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택시 기사 2명 중 1명이 박근혜 태워주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도



박현태

- 본회 회우
- 전 KBS 사장
- 전 국회의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가 과연 기사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이 나의 의문이었다. 이것은 숫제 아니다. 신문이 아부의 도구냐.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당면과제는 경제보다는 정치에 있고 언론에 있다. 정치판에서 떠도는 말들은 가히 폭력적이다. “이명박을 죽

여야 한다”, “수신료 인상 꿈도 꾸지 마!” 이런 세상에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말 안하고 침묵을 지킨다면 멀지 않아 나라는 파탄 날 것이 뻔하다. 잠자코 그때를 기다릴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철혈 재상’(鐵血宰相) 대망론이나 읊조릴 것이냐. 봉건 제후국들로 분리되어 있던 독일을 근대국가로 통일시킨 공로는 마땅히 프로이센의 총리였던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Fuerst von Bismarck · 1815~98)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는 1862년 9월 30일 프로이센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다. “당면한 대 문제는 철(鐵)과 혈(血)에 의하여 해결될 일이지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리하여 그의 ‘철혈 정책’(Blut und Eisen Politik)은 시작되었고, 이로써 독일은 통일되었다. 철은 무기, 혈은 국민의 피를 의미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평화와 자유와 번영에 중독되어 역사를 모르고, 노인들은 이미 노쇠하여 용기가 없다. 이런 차에 부산에서 어떤 70대 노인이 나서서 데모 행진의 길을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이것은 일진정풍이다. 우리는 그리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내가 메아리 없는 말과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圖\]](#)

# 재산 모두 잃어 - ‘獨不人’ 평가

원칙과 신념을 끝내 지키는 독불인, 할 소리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하고, 그가 써야 할 글이라면 누가 뭐래도 자기생각대로 쓴다’고 했다.

권력이나 권력기관에 태생적으로 거부 기질이 있는 그는 전형적인 반골이라며 일화를 소개했다. 1970년 국방부 출입기자 시절 ‘수경사 초병 총돌사건’으로 군에 연행되어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 앞에서 ‘당신 언젠가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큰소리친 데서 그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났다.

‘피고인 이도형’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입광규 변호사는 ‘남의 굶은 일에 앞장서는 의협심 강한 언론인’이라고 했다. 입 변호사는 1996년 6월, 당시 서강대학교 박흥신부가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하던 노동조합을 비판하여 소송을 당하자 그의 변론을 맡았다. 박 총장과 면식이 없는 이도형은 이듬해 5월 노재봉, 오제도 씨 등 보수인사 70여명과 함께 후원회를 조직하여 ‘박흥 신부 구하

를 쓴 것이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결과 조선일보가 앞장서 벌인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캠페인에 400여억 원의 성금이 들어왔지요.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훈장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일 기사로 훈장을 받는다는 게 기자의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교과서 왜곡기술 고발의 주도적인 보도로 그는 1983년 중앙대학교 설립자인 승당 임영신 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1회 승당언론상을 수상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보수의 길을 걸어 온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정통보수파들의 결집체인 ‘비래한국 국민연합(한국연합)’의 창립에 앞장섰다. ‘한국연합’은 종북세력과 반국가단체를 척결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발족했다. 이도형 회우는 ‘한국연합’ 공동대표로 이 달 7일과 9일 프레스센터에

서 창립1주년 기념 지도자 포럼을 여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보수의 기치를 펴고 있다.

저서로는 ‘조선인·한국인·비한국인’(2007·청미디어), ‘벚꽃은 다시 핀다’(1973·범서출판), ‘일본, 다시보고 생각한다’(1986·조선일보사), ‘黑幕’(1986·조선일보사) 등이 있다.

“10평 남짓한 ‘한국논단’ 편집실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읽고 쓰는 즐거움이 한겨울 새벽 거지가 모닥불 쬔는 것처럼 포근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이도형 회우는 “한국논단 제작을 위해 빛도 얻으려 다녔고, 캄캄인 나를 도와 독자관리를 해주고 발송 일도 도와주는 아내가 한 없이 고맙고 아름답다”고 덧붙인다. 50년째 해로하고 있는 權五壽(75)여사와의 사이에 1남 4녀. 아들 鎭旭(42)씨는 삼성 일본지사에 근무한다. [\[圖\]](#)



패션도 건설도  
열정이 없다면  
작품이 아니다  
건설은 패션이다

금호건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變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피기 위해 '암화(癌化)의 메커니즘' 등 전문 수준의 서적 3권을 읽었으나 그 내용을 간추려 적는다 하더라도 암 예방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오로지 예방에 관한 정보를 볼수 있는 책 3권을 읽었다. 에어로박스 창시자로 알려진 케네스·H·쿠퍼(kenneth·H·cooper M.D)의 '항산화혁명 (ANTIOXIDANT REVOLUTION)'과 미국의 저명한 통합 (자연)요법의 권위자 앤드류 웨일(Andrew weil M.D)의 '자연건강 자연요법(NATURAL HEALTH, NATURAL MEDICINE)'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 진 카퍼(Jean carper)의 '음식-당신의 불가사의한 약(FOOD-your Mirade MEDICINE)' 등 3권이다

먼저 앤드류 웨일의 '자연건강, 자연요법' 제 11장의 암을 피하는 방법을 보자.

유전학적으로 암에 걸리기 쉬운 가계(家系)가 있으나 유전하는 것은 암이 아니라 암에 걸리기 쉬운 질병 소질이다. 질병소질이 병을 일으키는 데는 다른 위험인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 위험

인자는 식생활을 비롯한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 대장암의 경우, 지방과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정제된 전분의 과잉 섭취, 야채를 비롯한 식물섬유의 부족에도 관계가 있다. 특히 동물성지방은 위험하다. 영양학자 진 카퍼는 '동물성 지방은 대단히 위험하다' (ANIMAL FAT-BIG DANGER)는 제목으로 경고하고 있다.

대장암은 폴립(Polyp)가 시발이 되는데 폴립은 장벽(腸壁)에 돋어난 버섯모양의 양성종양이다. 크기가 3~4cm가 되면 90%는 암이 된다고 한다. 폴립 형성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나 폴립이 돌아나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장내의 세균환경에 의해 좌우되며 식생활의 질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단백, 고지방, 저섬유의 장내(腸內)와 저단백, 저지방, 고섬유식을 하는 사람의 장 속은 화학적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을 피하는 첫째조건은 식생활에 달려있다. '고粱진미'는 병을 부른다는 말은 옛말이되 그건 철칙이다.

둘째는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 특히 암에 걸릴 위험인자를 안고 있는 사람은 명심할 일이다. 이 때의 위험인자는 과식, 비만, 운동부족, 짭짤 음식, 수면부족, 피로누적, 변비, 정신적불안정(스트레스) 등이 겹쳐 있을때 유전자를 변화시켜 암이 시작 된다는 것이다. 세포의 악성변성은

# 병은 낫는다 ⑬

## 癌은 지척에 있다 ㉓

노상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써 암화된 세포가 무한증식해서 검사로 드러나기까지 (1cm 크기, 10억 개의 암세포 덩어리)는 약 9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이 자라나는 동안 인체의 방위 시스템인 면역계는 저하되어 있으므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건강에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선 검사나 CT 검사를 받지않는다. 특히 CT는 흉부 엑스선의 1000배나 되는 방사선 피폭량을 앤드류 웨일이 지적한 바 있다. 나는 여러번 엑스선 검사를 거부한 일이 있으나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거부 할 수 없

## 식생활 개선 등 10계명 지켜라

정성을 다하는 수밖에만 방법이 없다.

셋째는 유해한 방사선을 피하는 길이다. 엑스선, 방사능 핵(核)에너지 등은 세포분자의 전자(電子)를 그 궤도에서 털어내는 전리(電離)방사선인데 의사는 방사선의 안전성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하다는게 앤드류 웨일의 경고다. 전리 방사선은 분열하고 있는 세포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손상을 입힌다.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은 상피(살갗, 장기의 내벽등) 조직이므로 거의 모든 암이 상피조직에 생긴다. "방사선의 안전 조사량(照射量) 따위는 거짓이다" "납득할수 있는 이유없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엑스선 검사를 받아선 안된다" "의사에 의해서 그 필요성의 설명이 납득할 경우 외엔 함부로 엑스선 검사에 동의해선 안된다" 앤드류 웨일의 강력한 경고다.

나는 내가 납득할 경우 외엔 엑스



암을 막으려면 녹황색 채소의 섭취가 중요하다.

자외선은 전리 방사선은 아니지만 세포의 DNA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자외선에 장시간 신체를 노출 시키는 것은 피해야 된다.

다섯째 유해한 화학 물질을 피하라. 살충제와 제초제는 접촉을 피하도록 페인트, 접착제, 물감(염료)등도 발암 혐의가 있다

여섯째 담배를 끊어라. 군말이 있을수 없다.

일곱번째 술은 적당히, 그렇지 않으면 끊어라.

여덟번째 너무 짠 것, 훈제식품, 곰팡이, 붉은색의 가공식품(햄, 베이컨, 콘비프)등은 위속에서 발암성분을 형

성하는데 그 형성을 막는것이 비타민C다. 육류를 비롯한 단백질이 타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그 연기도 위험하다

아홉번째 헬시한 식사, 곧 동물성 지방은 싹 줄이고, 과일 야채를 늘림으로써 '암에 강한 식생활'을 확보 할 수 있다.

열번째 항산화(抗酸化) 보조 식품을 이용하자. 이 대목은 케네스 쿠퍼의 '항산화 혁명'으로 넘어 간다.

마당에 던져둔 쇠토막에 녹이 슬듯이 사람도 녹이 스다. 노화(老化)다. 항산화가 노화방지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케네스 쿠퍼는 예방의학의 개척자. 그 '항산화 혁명'에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가벼운(알맞은) 운동의 지속과 '항산화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비타민 에이스로 불리는 항산화 네트워크의 세 기둥은 몸속에 섭취되면 비타민A로 변하는 베타 카로틴(Beta-carotene), 베타 카로틴은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등 녹황색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다. 폐암환자의 베타 카로틴 혈중농도는 낮다는게 정설(定設)로 되어있다. 그 다음

비타민C다. 하루에 5000~6000mg 섭취를 주장하는 의사도 있지만 1000mg 하루 2-3정이면 충분하다. 나는

감기가 왔을때 5000~6000mg 까지 다량의 생수와 함께 복용함으로써 감기를 내쫓는 경험이 여러 번 있다. 셋째로 비타민E 는 항산화력이 강하고 비타민C의 흡수를 돕는다. 이 외에 셀레늄(Selenium)이 있다. 항산화력이 비타민E의 50배내지 100배나 강하다고 한다.

나는 몇년 째 비타민 ACE (베타 카로틴 15mg 1정+비타민C 1000mg 2정+비타민E(400 I.U. 2정)과 셀레늄200mcg1정을 매일 섭취하는데 가까운 후배들에게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건강 보조식품이므로 건전한 생활습관을 도모 하는게 생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타민 ACE와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쓸어내는 주역이다. 활성산소를 설명할 지면이 없지만 짝이 되어 있는 세포의 전자 하나가 빠져 달아난 활성산소는 거의 모든 질병, 암 발생에도 간여하는 미친 산소다.

진 카퍼의 영양(암을 막는) 이야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식품은 마늘과 양파다. 뒤를 잇는 게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생강, 감귤류, 콩, 녹차 등인데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최대의 항암 무기는 베타 카로틴이며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암과 싸우는 복합 메커니즘에 의해 종양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밝혀진 화학적 발암인자는 2,000가지나 된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암을 막을 수 없다. ㉓



www.kdhc.co.kr

# 마음 놓고 쓰다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 에너지 절약도, 환경보호도 효율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 공동주택 및 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고도화 및 다각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역 냉·난방 사업



전기사업



CES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따소미 고객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688 2488**

평일 09~18시  
토, 일요일, 공휴일 휴무



**한국지역난방공사**

# 국회 ‘언론인 금고’ 재원 확충 필요성 제기

## 언론가 소식

### 국정감사서 집중거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년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이성준 이사장

국정감사에 서 의원들은 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진흥기금 및 언론인금고 등의 재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언론인회

흥원기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퇴직언론인도 언론인금고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해 줄 것을 언론재단에 건의 한바 있다.

언론인 금고는 1974년 출범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언론종사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1996년 이후 15년 동안 기금이 더 이상 출연되지 않아 현재 언론인금고 기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흥원기 회장은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들은 공무원 연금, 교사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받고 있지만 언론인들에게는 연금 혜택이 전

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언론인 금고 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한국 NIE대회 개최

2011 대한민국 NIE대회가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신문사랑’ ‘NIE공모전’과 시상식을 가졌다.

###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

관훈클럽(총무 정병진)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나경원(한나라당)후보와 박원순(무소속)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진행은 서두원 뉴스인 뉴스 총괄국장이 맡

았다.

### 12월 2일 한국아나운서대회

한국아나운서 클럽(회장 김동건)은 오는 12월 2일(금요일) 오후 7시부터 목동 현대백화점 7층 토포즈 홀에서 2011 한국아나운서 대회를 연다.

### 한국언론학회 차기회장에 김정탁 교수

김정탁 성균관대 사회과학부교수가 15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임기 2년)으로 선출됐다.

김 차기 회장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사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에서 언론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5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4]

## 생활정보

## 보건소 이용 건강챙기기

보건소- 대개 서민들이 이용하리란 생각은 접는게 좋을 것 같다.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 뿐 아니라 한방, 치과, 물리치료, 결핵진료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치과진료를 제외하고는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엔 자치구 마다 보건소를 갖추고 있다. 서울의 자치구는 25개로 모두 25군데의 보건소가 있으며 구역이 좀 넓은 지역은 분소를 두었는데 모두 11군데로 각자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각 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치과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 평균 10여명 씩 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본다.

먼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다. 만66세가 해당되는데 진단료는 무료다. 여기서는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과 혈액 검사 등 35개 항목을 검사한다.

다음 한방진료는 침 시술과 과립형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요통, 관절염 등 급만성 관절염을 앓는 65세 이상의 환자는 무료로 전기치료, 열 치료,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결핵진료는 X선 검사와 객담검사는 무료이며 치료약은 한 달 분 약값이 2천원이다.

치과 진료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보철 등 틀니를 해준다. 보통 60세 이상은 스케일링을 2만원에 해주고 있다.

전염병인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 이질, O157 등 수인성 감염병과 성병(임질, 매독, 에이즈)검사는 다 무료이다.

그리고 각 보건소는 각기 형편에 따라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65세 이상의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건강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초구청 보건소의 경우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게는 직접 의료진이 거주지를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 주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암 관리도 해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한한다.

보건소마다 노인건강교실을 개설, 낙상예방운동교실과 영양, 구강, 요실금, 우울증을 다루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시간이 허락하면 나가서 강의를 들어도 좋을 듯.

참고로 검사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엄청나게 싸 보건소를 이용하면 좋을것 같다. 전립샘 암등 4종 검사에 2만원, 갑상샘 기능검사 1만원, 당뇨 고지혈검사 1만원, 간기능검사 6천원, 혈액, 소변검사 5천원, 신장기능 검사 4천원, 골밀도 검사 6천원, 흉부 X선 검사 무료 등이다.

보건소에서는 감기나 설사 등 비응급 환자를 위해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비는 1,100원이며 진료시간은 월~금 19:00~22:00, 토 18:00~22:00 까지이다. [4]

이보길 편집위원 기

## 올 마지막 건강포럼 12일 개최 ‘선인들의 건강생활’ 김관태 회우 강의

“최근 우리나라도 85세 이상의 최고령자와 100세 인(人)이 급증해 평균 수명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진정한 장수는 단순한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로의료재단 건강증진센터 진료원장인 오혜영 박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토요건강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수는 유전자에 의해 20~30%의 영향을 받으며 나머지는 개인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주위환경 요인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대개 100세인의 특색을 보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많으며 금연과 절주, 식단도 하루세끼 채식위주로 하고 콩과 견과류를 즐겨먹는 사람, 규칙적으로 육체 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루 7~8시간 자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세인의 수가 2천여 명 정도이며 1:11로 여성이 월등히 많으며 97% 이상이 농어촌에 살고 있다. 전북 순창이 장수촌으로 불리고 있는데 10만 명당 28.9명이며 전남북 해안지방과 지리산주변 경남을 포함한 산간 지방이 한국의 장수 지역이다.

오 박사는 100세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선 노인들이 고구마, 곡류, 생선,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며 대도시와는 달리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잘돼 있을 뿐 아니라 방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정원손질이라든가 집안청소, 밭에 나가 일하는 한편



‘100세 사는 법’을 열강하는 오혜영 박사.

친구들과 산책을 하는 등 걷기운동을 하고 있으며 영성이나 기도생활 등 5가지 요인이 장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타임지가 선정한 장수식품으로 견과류, 귀리, 녹차, 마늘, 브로콜리, 블루베리, 가지, 시금치, 연어, 레드와인, 토마토 등을 소개 하면서 100세를 사는 방법은 걷기와 적절한 식사, 스트레스관리, 금연, 느긋한 마음가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No 3Y’ 즉 No Angly, No Hurry, No Worry로 살아갈 것을 권했다.

오 박사는 세계 최고령으로 하와이 마라톤대회에서 다섯 번이나 완주했던 92세의 미국여성 그래디 부릴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2011년 마지막 ‘토요건강포럼’은 오는 12일 ‘선인들의 건강생활은 어땠을까?’란 주제로 박물관 도슨트(Docent·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해설사)인 김관태 전 서울신문 사업국장이 강연한다. 장소는 역시 을지로입구 외환은행 앞 ‘이운수·조성완 비노기과’에 있는 한국성과학연구소 홀이다. [4]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1-09-025호(2011.09.29)

# 찾아와서 좋다 높아져서 참 좋다

## 큰 돈은 높은 금리 산업은행에 KDBdirect/HiAccount



“바쁜 미국투어 중에도  
제 자산관리는  
늘 KDBdirect로 하고 있어  
든든합니다.”

KDB산업금융그룹 후원  
박세리 선수

수시입출금식 예금 (실질금리)

KDBdirect/HiAccount

연 **3.50%**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KDBdirect/Hi정기예금

(년, 우대이율 포함)

최고 연 **4.50%**

높은 금리에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KDB의 놀라운 금융혜택이 시작됩니다

KDBdirect 멤버스 높은 금리와 함께 할 KDBdirect/HiAccount 가입방법



KDBdirect 서비스 KDBdirect/HiAccount의 놀라운 금융 거래조건

|           |                                              |      |                    |
|-----------|----------------------------------------------|------|--------------------|
| 가입자격      | KDBdirect 회원인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제외), 1인 1계좌 |      |                    |
| 가입금액 / 기간 | 제한 없음                                        | 적용이율 |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연 3.50% |

산업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이 산업은행 홈페이지 (www.KDB.co.kr)에서 KDBdirect 가입신청을 하시면, 저희 전담직원이 방문 설명확인을 한 후 KDBdirect/HiAccount를 개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1.9.29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지역 부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 이율은 '11.9.29 현재 적용 이율(세전)이며, 시장금리, 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전화 1588-1500 / www.KDB.co.kr

Pioneer Bank  
**KDB산업은행**

### 북한연구소 개설 40주년 기념행사주관



계창호(북한연구소 소장) 회우=11월 4일 오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연구소 개설 40주년 기념식 및 특별 강연행사를 갖는다.

### KTV'정책대담' 진행 맡아



고수웅(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부회장)회우=10월 23일(일요일)부터 KTV(한국정책방송)의 '정책대담' 프로(10월 23일, 30일 아침 8:00~09:00, 저녁 20:00~21:00 까지, 11월 1일 낮 12:00~13:00까지)의 진행을 맡았다.

### '남북경제교류 청사진' 강의



곽찬호(전 본회 복지기금관리위원장) 원로회우=2011년 9월 27일 11시 성동구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성동구보훈단체 간부 92명을 대상으로 '남북경제교류 청사진'을 주제로 강의했다.

### 제6회 동곡(東谷)상 시상



김준하(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전 강원일보 사장) 원로회우=10월 12일 오후 2시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6회 동곡상을 시상. 동곡상은 고 동곡 김진만 선생의 유지 현양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31년 만에 부활됐다.

### 울산과기대 이사장에



김진현(전 과학기술처장관)회우=울산과기대(총장 조무제)는 지난 10월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진 구성과 함께 김진현 이사를 임기 2년의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가족과 함께 팔순연



김한길(뉴스매거진 논설주간, 전 대우일보 편집국장) 회우=지난 10월 25일(음 9월 29일) 80회 생일을 맞아 경주 보문호변의 현대호텔에서 가족들과 팔순연을 열었다.

### '문학의 집' 개관 10주년 행사



김후란(시인·문학의 집 이사장) 회우=지난 10월 21일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개관 10주년기념행사에서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에게 '가장 문학적인 언론인 상'을 시상하는 한편 10개 분야 사회인사 10명에게 '가장 문학적인 상'을 시상했다.

### 강원민방 10주년 공로패 받아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 본회 발전기획위원장=지난 10월 10일 GTV 강원민방 10주년을 맞아 회사 창업과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 제1회 정경문화대상 정치발전상 수상



박선영(자유선진당의원) 회우=최근 정경 미디어 그룹이 선정한 제1회 2011 한국정경문화대상-정치발전 부문상을 수상

## 회우동정

(가나다순)

했다. 한편 박의원은 10월 5일 독도에서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 음악회'를 개최했다.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윤재홍(경기대 교수)회우=지난 8월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10월초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언론매체학 전공)로 부임했다.

### 동강 사진마을 10주년기념 초대전



윤주영(전 문공부장관) 회우=11월 14일부터 12월 18일 까지 강원도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본관 및 별관 전시실에서 동강 사진마을 선포 10주년 기념 초대전으로 윤주영사진전을 갖는다.

### 제22회 위암 장지연상 시상



이종석(장지연기념회 회장)회우=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22회 위암 장지연상 시상식 및 축하연을 가졌다.

### 고대교우회 상임이사



임학수(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원로회우=최근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로 선임.

### 제11회 延文人賞 수상



정구종(동서대 석좌교수) 회우=11월 7일 오후 6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제11회 延文人賞을 수상한다. 延文人賞은 연세대 문과대 동창회가 매년 모교의 명예를 빛내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졸업생 또는 전·현직 교수에게 주는 상이다.

### 평화비전21 지도자 국제세미나' 참석



조창화(본회 명예회장·사진 상좌), 안종우(사진 상우), 최귀조(본회 이사·사진 하좌), 강진형 회우(사진 하우)=10월 27일부터 5박 6일간 중국 여순, 대련, 단둥 3개 지역에서 열린 '평화비전 21 지도자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고 11월 1일 귀국했다.

###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출판기념회



황관필(전 서울경제 문화부장)회우= 2011년 11월 4일 오후 6시 영덕대계집(종로구청 오른쪽)에서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 회우가족동정

### 제재형 고문 손녀 독주회



대한언론인회 제재형 고문의 4남 민호씨(이수화학 그룹 CEO)의 장녀 제영인씨 하프 독주회가 10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현재 예원학교 2학년인 제영인씨는 서울 바르크합주단 전국음악콩쿠르 1위, 서울예술음악콩쿠르 1위(2011년), 대한민국 음악콩쿠르 최고상(2009년)등을 수상 한 하프기대주다.

##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소재필(蘇在必)

1939년 12월 20일생 서울은평구 진관동 5 은평뉴타운 상립마을 624-401 02-353-7651 010-3799-7651 코리아헤럴드 기자(59) 코리아타임스 편집부차장(69)



### 이근양(李根諒)

1939년 3월 29일생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2-605 02-542-9601 016-326-9601 중앙일보 베이루트 테헤란 특파원(65) 본 특파원(76) 논설위원(84) 판매국장 중앙일보사우회장(2008)



### 이용화(李溶和)

1948년 8월 15일생 서울은평구 역촌동 25-42 상신빌라 102호 02-757-5523 010-3100-6194 동아일보 교열부기자(76) 교열부 차장(98) 파이낸셜뉴스 편집위원(2007)



### 이재권(李在權)

1954년 10월 21일생 서울 강남구 율현동 298-8 02-6243-6279 010-5325-1021 동아방송 사회문화부기자(79)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스포츠동아 겸직)체육부장 심의실장 스포츠동아전문이사(2008)

## 회우경사일림

### \* 결혼 \*

#### \* 성낙오(본회 편집위원장)회우=

11월 20일(일요일) 오전 11시 장남 결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 \* 주소영(본회 사무직원)씨=

11월 19일(토요일) 오후 6시 결혼, W-wedding 2층 엘린홀(지하철 7호선 막골역 1번 출구 태릉 방면으로 도보 10분·6, 7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

## 본회 인사

### 사무직

주나영 (10월21일자)  
(주소영씨는 10월 20일자로 퇴직)

##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p.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천년의 고적

- 명성황후 생가
- 파사성
- 여주 세계문화유산 세종대왕릉(영릉)
- 2011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 신륵사

한강

# 물길따라 발길따라

백제의 숨결

- 새만금 방조제
- 국립공주박물관
- 낙화암
- 마량리 동백숲
- 나바위 성당

금강

한강을 따라 천년의 역사를  
금강을 따라 백제의 아름다움을  
낙동강을 따라 찬란한 전통문화를  
영산강을 따라 남도의 맛과 멋을

함께 가요!  
견고 싶은 大韓江國

외치고 싶을때 유유히 떠나는 내 나라 강나들이  
외유내강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www.녹색관광.kr](http://www.녹색관광.kr)를 방문해 주세요

영산강

남도 식도락의 길

- 영산포 홍어거리
- 진도 역사유물관
- 나주 천연염색체험
- 나주 영상테마파크
- 메타세쿼이아길

전통문화의 감동

- 하회마을
- 병산서원
- 소수서원 & 선비촌
- 합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 부용대

낙동강



제주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SK가 응원합니다



노를 저어 주면

잠간의 행복을 주지만

노 젓는 법을 알려주면

오랫동안 행복을 향해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SK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SK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의 방법을 나눕니다 **OK! SK**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도시락을 나누는 **행복도시락**



방과 후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행복한 학교**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생각이  
함께하는 인터넷 공간, **세상**



늘 가까이 책과 함께하는  
행복을 드리는 **행복한 도서관**

**[사회적 기업은 우리 이웃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의 일부를 환원,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합니다]**